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웃긴다”

다음달 개봉 예정 영화 ‘국제수사’
시골형사로 코미디 도전 광도원
“시나리오 재밌어 도전 했다”



‘국제수사’

독종 검사(아수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강철비), 전 중앙정보부장(남산의 부장들) 등 최근작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고위공직자 역할로 각인된 배우 광도원이 허술한 시골 형사로 코미디에 도전했다.

영화 ‘국제수사’에서 복서 출신 시골 형사 홍병수를 연기한 광도원은 최근 열린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좀 모자라서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잘 안되는, 남들이 보기엔 답답한 인물”이라며 웃기려고 망가지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데 꼬이고 꼬여서 웃기는 진지한 코미디”라고 말했다.

영화는 난생처음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병수가 현지 조직이 설계한 범죄(셋업 범죄)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가 되고, 누명을 벗기 위해 현지 가이드이자 교향후배와 수사에 나서는 이야기다.

광도원은 “연극 할 때는 코믹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영화는 첫 단추를 고위공무원으로 하다 보니 그런 역할이 많이 들어왔다”며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서 도전 아닌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꽤 많은 작품에 출연했지만,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건 악질 검사로 분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2011)다.

이번 영화 내내 뛰고 구르고 땀이 흐르고 빠지는 액션을 소화한 그는 복싱 훈련은 물론, 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스킨쿠버 자격증까지 따다. 영화의 80%를 촬영한 필리핀의 환경은 만만치 않아서, 촬영 기간 24개의 태풍과 셀 수 없이 많은 스콜이 지나갔다.

현지 제작 영상을 본 광도원은 “고생했던 기록이 새록 새록 하다. 배우들이 감독의 셋업 영화에 낡은 느낌”이라면서도 “자기 촬영이 없어도 관망하는 느낌으로 다른 배



국제수사 주연배우들인 김상호, 김희원, 광도원, 김대명(왼쪽부터)

우의 촬영 장소를 따라다녔다”며 팀워크를 자랑하기도 했다.

줄지에 병수의 수사 파트너가 된 현지 가이드 만철 역을 맡아 함께 스킨쿠버 자격증을 딴 김대명도 “살이 아

름다운 거구나,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경험이었다”고 고생담을 전했다.

김희원은 필리핀 범죄조직의 길러 패트릭으로, 김상호는 필리핀 감옥에서 만난 죽마고우 용배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광도원은 “패트릭은 너무 진지해서 너무 웃긴다”며, 김대명은 “패트릭이 등장하는 장면이 최고의 등장장으로 오레 남을 것”이라며 김희원의 존재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건의 원흉’, ‘최고의 사기꾼’으로 주목당한 용배 역의 김상호는 필리핀의 실제 감옥에서 촬영했다. 한류스타 이민호와 함께 출연한 드라마 ‘시티헌터’가 현지에서 인기를 얻은 덕에 식당에 가면 반찬이 많이 놓이는 존재감을 보이기도 했다.

‘보통사람’(2017)의 김병환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는 내달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반기 시청자 최다 드라마 ‘김사부2’

닐슨코리아 조사
‘부부의 세계’ 2위



상반기 방송된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드라마는 SBS TV 월화극 ‘남만닥터 김사부2’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KBS 2TV, MBC TV, SBS TV 등 지상파 3사와 종편 JTBC, 케이블 tvN에서 방송한 미니시리즈(10~50부작)의 전국(13개 지역) 시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만닥터 김사부2’는 전 연령 시청자 수 344만 6천716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상반기 최고시청률을 기록한 JTBC ‘부부의 세계’로, 시청자 수는 335만 2475명으로 나타났다.

3위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tvN ‘사랑의 불시착’이 차지했으며 333만 433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드라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확보한 방송사는 SBS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당 평균 시청자 수 순으로 상위 15개 드라마를 추리면 1~15위 중 SBS가 일곱 작품이나 차지했으며, 이들 모두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tvN은 ‘사랑의 불시착’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이바이, 마마!’,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각각 2위, 6위, 12위, 13위로 조사됐다.

JTBC는 ‘부부의 세계’(2위)와 ‘이태원 클라쓰’(5위)로 5위 안에 두 작품이나 이름을 올렸지만, 그 외 드라마들은 모두 15위 밖으로 밀려나 같은 방송사 내에서도 ‘부억빈 빈익빈’ 현상을 보였다.

양대 공영방송 KBS와 MBC는 각각 ‘99억의 여자’(11위), ‘꼰대인턴’(15위)으로 단 한 작품씩만을 올리며 ‘지상파 드라마의 위기’를 절감케 했다. 특히 MBC는 유일하게 15위 안에 든 ‘꼰대인턴’조차 시청자 수 100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드라마 시장의 무게추가 평일에서 주말로 완전히 이동한 현상도 확인됐다.

다. 상위 15개 작품 중 금토·토일 드라마가 9개로 절대다수였다.

닐슨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은 ‘부부의 세계’가 28.4%, ‘남만닥터 김사부2’가 27.1%로 ‘부부의 세계’가 ‘남만닥터 김사부2’보다 높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나타난 시청자 수로 따지면 ‘남만닥터 김사부2’가 ‘부부의 세계’보다 9만4천241명 더 많다. 시청률과 시청자 수 중 어떤 지표가 정확할까?

언론과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청률은 닐슨코리아의 가구 시청률로, 지상파와 종편-유료채널의 집계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지상파 시청률은 전국 주요 13개 지역(서울, 경기·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충청, 강원, 전주, 청주, 구미, 울산, 제주)을 대상으로 유료 방송 가입 가구와 직접 수신 가구를 모두 더해서 집계하지만, 종편과 케이블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유료 방송 가입 가구만을 따진다.

반면 시청자 수는 해당 시간에 TV를 켜고 시청하는 가구 프로그램을 본 실제 사람 수를 계산한 것으로, 시청률보다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즉 시청자 수는 지상파, 종합편성, 유료채널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계산돼 비교에 혼란이 있는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장인인 셈이다. /연합뉴스

75만명 본 BTS ‘방방콘’,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

유료 온라인 콘서트 중 가장 큰 규모



온라인 라이브 펼치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BTS)의 온라인 공연 ‘방방콘 더 라이브’(이하 방방콘)가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최다 시청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올랐다.

기네스 세계기록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방탄소년단이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 콘서트로 새로운 기네스 세계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방방콘’은 방탄소년단이 지난날 14일 개최한 첫 유료 온라인 공연이다. 멤버들은 약 100분간 12곡 무대를 펼치고 전세계 팬들은 생중계로 관람했다.

당시 100여개국에서 최대 75만6000여명이 동시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 공연 15회와 맞먹는 수치다.

당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에서 진행된 유료 온라인 콘서트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소개했

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앨범차트 1위를 한 첫 한국 가수, 한국 최대 앨범 판매량 등으로 여러 개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별명부자’ 박명수 부캐릭터 ‘할명수’ 내달 공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DJ 지팍(G-Park)’, ‘사자가 박사’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방송인 박명수가 새로운 ‘부캐’(부캐릭터) 생성에 나선다.

JTBC는 TV와 온라인을 잇는 멀티 플랫폼 콘텐츠 ‘할명수’를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방송가에 부는 ‘부캐’ 열풍 속에서 원조 별명부자였던 박명수가 ‘할명수’를 통해 유산술(유재석), 뜰레이모 김다비(김신영)를 능가하는 인기 서브 캐릭터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할명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독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박명수의 부캐릭터 세계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안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각종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비비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원만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빔밥, 각종해산물비빔밥, 돌솥비빔밥, 연어초밥, 회세트
☎ 062)229-1008, 010-8572-099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영결)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퀸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심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콜릿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사랑방공인중개사사무소

북구 안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분위
☎ 062)574-8924, 010-9332-8184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뮤엄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엄영어가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육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드립니다.
신용분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동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만福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